논어 5편 공야장 20장 · 원문·풀이

# 季文子三思而後行。子聞之曰：「再，斯可矣！」

독음 · 계문자삼사이후행 자문지왈 재 사가의

쉬운 풀이(요약) · 계문자가 세 번 생각하고 행동했다는 말에 공자는 두 번이면 충분하다고 했다. 숙고도 지나치면 판단을 흐릴 수 있다는 뜻으로 읽는다.

AI가 원문을 대조해 작성한 학습용 요약입니다. 해석이 갈리는 구절은 다른 풀이도 있습니다.

글자 뜻과 음(대표 훈음 · 문맥별 독음은 위 본문 참고)

季 끝 계 계 / 文 무늬 문 문 / 子 아들 자 / 三 석 삼 삼

思 생각할 사 사 / 而 말이을 이 / 後 뒤 후 후 / 行 다닐 행 행

聞 들을 문 문 / 之 갈 지 / 曰 가로 왈 / 再 두 번 재 재

斯 이 사 사 / 可 옳을 가 가 / 矣 어조사 의

저본: 위키문헌 論語 · 편별 고정 판본과 전체 교정 기록은 출처 페이지를 참고하세요.